

設問紙를 통한 四象體質의 臨床的 分類方案 研究

金映佑·金鍾元*

A CLINICAL STUDY OF THE JUDGMENT OF SASANG CONSTITUTION ACCORDING TO QUESTIONNAIRE

Kim Jong-weon, Kim Young-woo

Dept. of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 Eui University, Pusan, Korea

The object of this study is 27 patients who had been treated in the Oriental Medical Hospital at Dong Eui Medical Center during 6 months from January 1998 to June 1998. We proceeded the judgment of Sasang Constitution by 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 (QSCC I). The following conclusion were made in comparison with 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 (QSCC I) and Questionnaire of Pusan Sasang seminar.

1. The subject of "the facial type is small and sharp" is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The frequency of *Soeumin* group is more than *Taeumin* group and *Soyangin* group.
2. The subject of "the walking form is fast and shake the body" is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The frequency of *Taeumin* group and *Soeumin* group is less than *Soyangin* group.
3. The subject of "the skin type is white and thin" is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The frequency of *Soeumin* group is more than *Soyangin* group, and the frequency of *Taeumin* group is low marks.
4. The subject of "the skin type is tender and dry" is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sang Constitution

* 東義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四象醫學科學專攻

- classification. The frequency of *Taeumin* group and *Soyangin* group is less than *Soeumin* group.
5. The subject of “the image of face is smart” is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The frequency of *Soeumin* group is more than *Taeumin* group and the frequency of *Soyangin* group is low marks.
 6. The subject of “the sweating type is not sweater” is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The frequency of *Taeumin* group and *Soeumin* group is less than *Soyangin* group.
 7. The subject of “the desire of eating is changeable according to emotion” is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The frequency of *Soeumin* group is more than *Taeumin* group and *Soyangin* group.
 8. The subject of “the health is changeable according to the type of stool” is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The frequency of *Soeumin* group is more than *Soyangin* group and the frequency of *Taeumin* group is low marks.
 9. The subject of “the type of voiding is changeable according to the drinking when they have a fever” is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The frequency of *Taeumin* group and *Soyangin* group is less than *Soeumin* group.
 10. The subject of “the skin type is soft” is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The frequency of *Soeumin* group is more than *Taeumin* group and *Soyangin* group.
 11. The subject of “the chief complaint is the forgetfulness” is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The frequency of *Soeumin* group is less than *Taeumin* group and *Soyangin* group.

요 약

본 研究는 1998. 1月에서 1998. 6月사이에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附屬韓方病院에 入院 加療中인 환자 27명을 對象으로 하였으며, 四象體質의 判別은 四象體質分類檢査(QSCC II)를 중심으로 하였다. 본 결과는 四象體質分類檢査(QSCC II)와 四象學會 釜山市支部에서 사용하고 있는 說問紙를 비교하여 얻은 것이다.

1. 얼굴모양에 있어서는 太陰人과 少陽人에 비하여 少陰人이 “눈코입이 작고 섬세한 편”이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다.
2. 걸음걸이에 있어서는 太陰人과 少陰人이 少陽人에 비하여 “걸음이 빠르고 몸을 흔든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낮았다.
3. 皮膚에 있어서는 少陽人에 비하여 少陰人이 “회고 마른 편이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太陰人은 빈도가 낮았다.

4. 皮膚에 있어서는 “피부가 부드럽고 마른 편이다.”라는 항목에서는 少陽人과 太陰人이 少陰人에 비하여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5. 전반적인 얼굴에서 느껴지는 느낌에서는 “단정하다.”라는 항목에서 太陰人에 비하여 少陰人은 높은 빈도의 대답을 하였으며, 少陽人은 낮은 빈도의 대답을 하였다.
6. 汗出에 있어서는 太陰人이 少陽人과 少陰人에 비하여 “대체로 땀이 적은 편이거나 땀이 다른 사람보다 적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낮았다.
7. 食慾에 있어서는 少陽人과 太陰人에 비하여 少陰人이 “기분에 따라 식욕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편차가 심하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다.
8. 大便에 있어서는 “평소에 대변이 무른 것보다 단단해야 건강 상태가 좋다.”라는 항목과 “대변이 무르거나 설사가 나면 건강 상태가 나빠진다. (찬 것, 기름진 것을 먹으면 심하다.)”라는 항목에서 少陽人에 비하여 少陰人은 그렇다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太陰人은 그 빈도가 낮았다.
9. 小便에 있어서는 少陰人에 비하여 少陽人과 太陰人이 “몸에 열이 많으면 갈증이 나서 물을 먹는데 먹는 것보다 소변량이 더 많이 보게 된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낮았다.
10. 皮膚에 있어서는 少陽人과 太陰人에 비하여 少陰人은 “피부가 매끈매끈하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다.
11. 평소에 느끼는 자각증세에 있어 少陰人에 비하여 少陽人과 太陰人에게서 “健忘症”이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낮았다.

I. 緒 論

여로부터 人間은 醫術을 통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西洋에서는 주로 解剖學, 組織學, 細菌學 등을 바탕으로 하여 局所的인 原因을 제거하는데 힘써왔고, 반면 東洋에서는 人體를 自然現象과 同一視하여 그 變化를 陰陽, 五行의 理論으로 體系化하여 이들이 갖는 規律性을 토대로 全體的인 機能의 造化에 역점을 두어왔다. 이러한 兩大醫學은 人類에게 많은 공헌을 하였고 특히 西洋醫學의 발달은 여러 傳染病을 해결함으로써 人間의 壽命을 연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醫學이 發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同一疾病에 대한 藥의 效果에 있어서 개인차가 많고, 개체가 갖는 疾病에 대

한 感受性이 문제시되는 여러 면역관계 질환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여기에서 이 시대의 醫學이 해결해야할 문제점중의 하나가 바로 ‘體質’인 것이다.^{1,2)}

이러한 體質이란 各個人이 가진 精神的 혹은 肉體的인 特徵을 합하여 일컫는 말로써, 先天的 遺傳因子와 後天的 環境要素에 의하여 형성된 개개인이 지니는 類型的 特徵이다. 東西洋을 막론하고 많은 體質學說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身體的, 心理的 特徵에 대한 部分的인 說明에 그쳐 治療醫學으로서의 效率이 적었다. 이와는 달리 四象醫學은 個個人的인 性情 偏差에 따른 身體的 特徵 및 生理, 病理, 診斷, 治療 및 攝生에 이르기까지 具體的으로 提示하고 있어 單純히 理論的 價値에 그치지 않고 治療醫學으로서 훌륭한 價値를 지닌다.⁹⁾

東武 李濟馬(1837~1900)는 <格致彙>에 이어 <東醫壽世保元>(1894)을 완성하여 四象體質醫學論을 정립함으로써 體質醫學의 실제 임상적 운용이 대동하게 되었다. 東武公은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 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 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 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 少陰人”이라 하여 先天의으로 臟腑의 大小에 따라 서로 다른 體質이 있다 하였으니 곧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 太陽人의 구분으로 四象人을 정의하였으며 또한 이에 대한 病證 및 治療方法이 相異함을 論述하였다. 四象醫學에서는 人間은 外貌 뿐만이 아니라 體內的 五臟六腑의 構造와 機能 또는 精神狀態나 氣質 등도 제나름대로의 特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人間の 體質의 特性和 臟腑의 大小에 따라 4가지 體質로 區分하고 있다.^{1,2)}

이러한 體質의 特性에 따라 四象人의 臟腑性理가 서로 달라 그 運營方法에서 서로 陰陽升降緩束에 대한 差異가 있게 되고, 四象人의 고유한 生理體系와 病理 및 運營藥理가 따로 있게 되며, 各 體質에 따라서 外貌, 內心, 性情뿐만 아니라 疾病이나 症狀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既存의 證治醫學에서는 대부분 病理現象을 中心으로 辨證施治를 論하여 오고 있으나 四象醫學에서는 生理現象을 中心으로 體質辨證과 함께 體質生理病理를 論하고 있는 것이다.¹⁾

東武公은 四端論에서 喜怒哀樂의 性和 情의 二要素의 차이에 의하여 야기되는 臟腑生理의 차이에 의하여 太少陰陽人의 四類型으로 구분하였는데, 구분된 四象體質의 生理의 特性 곧 生理的 證은 他體質證과의 구분점이 되는 동시에, 病理의 特性 곧 四象病證과도 직접 關係하므로 四象體質辨證이란 곧 性情的 차이로 인한 四象人體質判別로 귀결된다 하겠다.^{1,2)}

다시 말하면 四象體質을 알기 위한 방법은 喜怒哀樂性情의 기준에 의한 心身の 兩面性을 살펴야 하니, 四象人의 身的 要素는 靜의 관찰 방법인 體形氣像論과 動的 觀察방법인 容貌詞氣論으로 나뉘고, 心的 要素는 性質과 材幹, 恒心, 心慾 등으로 나뉜다. 또 體質病證을 알기 위하여서는 太少陰陽人이 體質的으로 나타나는 生理的 證(完實의 조건)과 病理的 證(大病, 重病, 險證)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¹⁾

四象人의 體質辨證 方法論에 관하여 朴奭彥의 頭部觸診法, 李炳幸의 乳房 및 腸骨尺度法, 朴寅商의 十種鑑別法, 權度沅의 八體質鍼法과 診斷脈法, 薄荷·龍腦·丁香을 이용한 藥診法, 梁基汎의 免疫血液學的 鑑別法, 許萬會의 形態學的 圖式化에 關한 研究가 발표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研究는 心理的, 精神的 要素가 缺如되어 있고 실제로 臨床에 適用하기에는 不足한 面이 많고, <東醫壽世保元>의 內容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면이 再考되어야 할 사항으로 남아 있다.⁵⁾

또한 <東醫壽世保元>을 근거로 肉體的 體型和 精神的 氣質을 포괄한 自己報告式 設問調查方式을 도입한 辨證方法論 研究로 高炳熙의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查紙(I)과 金善豪의 四象體質分類檢査(QSCC I), 四象體質分類檢査(QSCC II)가 있다. 이러한 設問紙調查 方法은 대상자의 體質을 精確하게 反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大략적인 수준과 분류등의 목적으로 기존의 臨床心理學科와 神經精神科에서 心理分析을 위해 效과적인 方法으로서 널리 인식되고 있다.^{4,5)} 그러나 四象을 전공한 專門醫가 아닌 一般 臨床家에게 있어서는 活用上 몇 가지 難點이 있어 왔다. 一般 臨床家가 體質分類를 시행함에 있어 設問項數가 다소 많고 設問調查에 시간이 걸리며, 四象醫學的 觀點으로 對象者의 體質을 판단함에 있어 問項에 대한 對象者의 正確한 理解不足

등으로 인한 誤謬가 발생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臨床에 있어서는 普遍的인 基準資料로서의 役割을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고, 각 一般 臨床家들은 나름대로의 體質判別 基準을 통하여 四象體質判別을 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8)}

따라서 본 研究는 體質鑑別의 簡便化를 위하여 1998.1月에서 1998.6月사이에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附屬韓方病院에 入院 加療中인 환자 27명을 對象으로하여, 四象體質分類檢査(QSCC II)를 중심으로 四象體質을 判別하고, 이와함께 臨床家들이 簡便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四象學會 釜山市支部에서 만들어 놓은 設問紙(東醫壽世保元 上의 내용을 바탕으로하여 體形氣像, 容貌詞氣, 心性 및 性質材幹, 生理的인 生活習慣 등의 4개 項目에 31問項으로써 體質診斷分類와 疾病및 症狀類型과의 關係를 묻음. 이하 四象醫學會 設問紙로 명칭)와의 비교를 통하여 이들로부터 몇가지 知見을 얻을 수 있었기에 이를 보고 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1. 研究設計

本 研究는 非實驗的 研究(non-experimental design)로 四象人의 體質鑑別을 위한 設問調查紙의 比較檢證 研究이다.

2. 研究對象 및 資料收集期間

四象醫學會 設問紙 研究를 위하여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附屬韓方病院에 入院한 患者 중 四象醫學專攻 專門醫에 의하여 體質診斷을 받고 體質治療中인 者를 對象으로 하였다.

設問紙에 응답이 가능한 對象者로 四象體質分類를 원하는 27명의 患者를 對象으로 四象體質分類檢査(QSCC II)와 四象學會 設問紙를 設問調查 實施하였다. 對象者 중 太陽人 0명, 少陽人 13명, 太陰人 11명, 少陰人 4명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1998.1.1로부터 1998.6.20까지 약 6個月이 경과되었다.

3. 研究 對象者의 一般的 特性

本 研究에 포함된 사례들의 四象體質分類, 性別, 年齡別, 體重別, 身長別 分布는 Table 1, Table 2, Table 3, Table 4, Table 5에 提示하였다.

〈Table 1〉 四象體質別 分類表

四象體質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계
%	48.1%	40.7%	11.1%	100.00%
case	13名	11名	3名	27名

〈Table 2〉 性別 分類表

四象體質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계
男	6名	2名		8名
	22.2% (75.0%)	7.4% (25.0%)		29.63% (100%)
女	7名	9名	3名	19名
	25.9% (36.8%)	33.3% (47.4%)	11.1% (15.8%)	70.37% (100%)
계	13名	11名	3名	27名
	48.1%	40.7%	11.1%	100.00%

總 27名중 男子는 8名(29.6%)이고 女子가 19名(70.4%)이었다.

全體 被驗者의 나이의 平均은 59.3歲이고 最小나이는 28歲이고 最大나이는 76歲이었다.

全體 被驗者의 체중의 平均은 59.1kg이고 最小체

<Table 3> 年齡別 分類表

	年 齡							계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70代	平均年齡	
少 陽 人	1		2	4	4	2	56.5세	13
	3.7		7.4	14.8	14.8	7.4		48.1
	7.7		15.4	30.7	30.7	15.4		100.0
太 陰 人			1	4	3	3	62.5세	11
			3.7	14.8	11.1	11.1		40.7
			9.1	36.4	27.3	27.3		100.0
少 陰 人			1	1	1		57.3세	3
			3.7	3.7	3.7			11.1
			33.3	33.3	33.3			100.0
계	1		4	9	8	5	59.3세	27
	3.7		14.8	33.3	29.6	18.5		100.0

<Table 4> 體重別 分類表(平均體重, 단위: kg)

四象體質	少 陽 人	太 陰 人	少 陰 人	계
男	6名	2名		8名
	61.2	70		63.3
女	7名	9名	3名	19名
	54.9	61.6	51.3	57.5
계	13名	18名	3名	27명
	57.1	62.6	51.3	59.1

<Table 5> 身長別 分類表(平均身長, 단위: cm)

四象體質	少 陽 人	太 陰 人	少 陰 人	계
男	6名	2名		8名
	164.7	170.0		166.0
女	7名	9名	3名	19名
	157.7	157.9	152.7	157.0
계	13名	11名	6名	27名
	160.0	159.3	152.7	159.1

중은 43kg이고 最大체중은 75kg이었다.

全體 被驗者의 신장의 平均은 159.1cm이고 最小신장은 147cm이고 最大신장은 170cm이었다.

少陽人으로 分類된 者는 3名(48.1%), 太陰人으로 分類된 者는 11名(40.7%), 少陰人으로 分類된 者는 3名(11.1%)이었다.

4. 研究方法

1) 四象體質分類方法

實驗對象인 27名의 體質分類는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查紙(1)과 四象體質分類檢査紙(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 : QSCC I)를 참고로 使用하여 四象醫學 전공의에 의해 體質을 分類하였다.

2) 問診表 作成方法 및 問診內容

(1) 作成方法

體形氣像, 容貌詞氣, 心性 및 性質 材幹, 生理的인 生活習慣 등의 5개 項目에 33問項으로 作成된 問診表를 나누어 준 후 該當하는 부분에 表示하도록 하였다. 이중에서 體形氣像의 體格은 檢査者가 직접 줄자와 각도기를 利用하여 수치를 측정하였으며, 容貌詞氣 및 舌診 등은 被檢者의 진술과 함께 檢査者가 직접 관찰하여 표기하였다.

(2) 問診內容

㉠ 體形氣像-體格: 5개 문항

① 身長 몸무게

② 體 格

제1선: 腋窩部 大胸筋 外側上段을 兩起點으로 하여 연결한 수평길이를 척도

제2선: 兩乳頭를 수평으로 연장하여 左右兩脇과 수직을 이루는 길이를 척도

제3선: 臍상돌기에서 分岐하여 左右로 橫行下降하는 肓肭골 중 不容 穴位를 兩起點으로 幽門穴, 巨關穴을 연결하여 左右兩脇과 수직을 이루는 수평길이를 척도 (陰陽分枝線)

제4선: 臍를 중심으로 좌우 兩天樞穴을 수평으로 연장하여 좌우 양사와 수직을 이루는 수평길이를 척도

제5선: 좌우 전상장골극상단(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의 수평길이를 척도

③ 늑골 각도

④ 가슴둘레(제2선을 중심으로 측정)

⑤ 목젓에서 배꼽까지 길이

⑥ 목젓에서臍상돌기까지 길이

⑧ 容貌詞氣-9개문항

① 얼굴형-윤곽이 두텁하고 의젓한 편, 윤곽이 가름하고 단정한 편, 얼굴이 길고 머리 앞뒤가 튀어나온 편, 머리가 크고 정수리가 솟아 있는 편

② 얼굴모양-이목구비가 크고 입술이 두터운 편, 눈코입이 작고 섬세한 편, 입이 크지 않고 턱이 뾰족한 편이고 입술이 얇은 편, 이마가 넓고 광대뼈가 나와 있는 편

③ 얼굴색깔-갈색혹은 검은색이다, 황백색이다, 흰색혹은 붉은 빛이 돈다, 흰편이다,

④ 눈-눈빛이 밝지 않고 침침한 편, 눈빛이 순하고 눈웃음을 잘 짓는 편, 눈빛이 반사적이고 예리하다, 눈에서 빛이 난다.

⑤ 음성-음성이 탁하다, 음성이 조용한 편이다, 음성이 카랑카랑하다,

⑥ 말하는 습관-말수가 적고 간혹 더듬기도 한다, 말이 많지 않으나 가까운 사이와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말이 많고 함부로 막 하는 편이다

⑦ 걸음걸이-걸음이 느리고 무게 있게 걷는다,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게 앞전하다, 걸음이 빠르고 몸을 흔든다, 걸음걸이가 꺾끗하다.

⑧ 피부-두텁고 땀구멍이 크다, 부드럽고 땀구멍이 적다, 희고 마른 편이다, 부드럽고 마른 편이다.

⑨ 전반적인 얼굴에서 느껴지는 느낌-믿음직하다, 단정하다, 날카롭다

⑩ 心性 및 性質 材幹-4개 항목

① 내성적인편, 외향적인편, 남성적인 편, 여성적인 편

② 용모가 의젓하고 격식을 차리는 편, 태도가 온순하고 꾸밈이 없는편, 활동적이고 용감한 편, 거침이 없고 과단성이 있는 편

③ 움직이기 보다는 조용히 혼자 일을 추진하는 편, 한곳에 있으려고 하고 나다니려 하지 않는 편, 일을 벌려 놓기 하지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는 편, 무슨 일이든지 몰려서지 않고 밀고 나가는 편

④ 인내심이 많은 편, 평소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 행동이 경솔한 편, 항상 급하게 서두르는 편

⑪ 生理的인 生活習慣-13개 항목

평소, 과거, 현재의 변화 및 계절에 따른 변화를 문진할 것

① 땀-평소 땀이 많은편, 땀이 없는편, 보통,

땀을 흘리면 상쾌한 편, 피곤한 편, 별로 문제가 없는 편, 계절에 따라 다르다(봄 여름 가을 겨울)

· 대체로 땀이 적은 편이거나 땀이 다른 사람보다 적다.

· 땀이 적은 편인데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좋지 못하면 식은땀이 나고

· 이때 몸의 건강상태가 급속히 나빠진다.

· 대체로 열이 많아서 땀을 흘리는 편이거나

· 몸이 허약해지면 밤에 잘 때 식은땀이 난다.

· 대체로 땀이 적은 편이고 감기가 걸리면 손발바닥에서 땀이 나야 병이 낫는다.

· 땀이 대체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흘리는 편이며 땀을 많이 흘려도 큰 이상이 없다.

· 땀이 좀 적은 편이지만 감기 증세가 있을 때 땀을 내면 몸이 가벼워진다.

② 飮水-평소 喜冷, 喜溫, 多飮, 少飮, 계절에 따라 다르다(봄 여름 가을 겨울)

· 대체로 갈증을 느끼지 않고 물을 적게 먹는 편이거나 거의 물을 먹지 않는다.

· 갈증을 잘 느끼고 물을 많이 먹으며 시원한 물을 먹는 것이 좋다.

· 평소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지만 감기에 걸리면 입이 마르거나 물이 먹힌다.

· 갈증을 많이 느끼고 특히 땀이 많이 날 때 갈증이 많이 난다. 또는 소변을 많이 본다.

· 평소에는 물을 먹지 않지만 감기에 걸리면 오한증이 있으면 물을 먹는 경우가 있다.

③ 飮慾-평소 부진한 편, 왕성한 편, 불규칙적인 편, 식탐이 있는 편 평소에 식욕이 별로 없는 편이다. (기분과 큰 상관없이)

· 식욕은 비교적 있는 편이지만 실제로 많이 먹지는 못한다.

· 기분에 따라 식욕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편

차가 심하다.

· 평소에 식욕이 좋은 편이며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배가 불러도 좀 더 먹는 편이다.

④ 飮食量-평소 소식하는 편, 보통, 대식하는 편, 불규칙적인 편 매운 음식보다 찬 음식, 기름진 음식, 우유, 밀가루 음식 등의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나빠진다.

· 찬 음식보다 매운 음식, 짠 음식, 우유, 닭고기 등을 먹었을 때 건강이 나빠진다.

· 과식을 하는 경우에 주로 달이 나며 돼지고기, 닭고기, 오징어, 해산물, 어류 등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난다.

⑤ 消化-평소 잘되는 편, 易滯하는 편, 특정한 음식(기름진 것, 찬 것)을 먹으면 불량, 신경을 쓰면 불량

· 평소에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항상 고생했다)

· 찬음식, 기름진 음식 등을 먹었을 때 특히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 평소에 소화가 잘 되는 편인데 기분이 나쁘면 소화가 잘 안되고 식욕이 없다.

· 매운 음식, 짠 음식 등을 먹으면 찬 음식보다 소화장애가 잘 일어나고 위가 쓰린 것이 다른 사람보다 심하다.

· 비교적 소화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과식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 돼지고기, 닭고기, 오징어 등을 먹으면 소화가 안되거나 변이 물어지고

· 가스가 차고 변이 시원하지 못하다.

· 평소에 채식을 하면 소화가 잘 되고 육식을 하면 구토증이 생긴다.

⑥ 大便-평소 횟수(일 회), 변비여부(변이 묽은 편, 변이 된 편, 변이

· 흘러 지는 편, 변모양을 갖춘 편) 시간(시간

- 이 짧은 편, 시간이 긴 편),
- 대변본 후의 느낌(뒤가 무직한 느낌, 시원한 편)
- 횃수, 시간, 형태(굵기), 색깔
- 평소에 대변이 무른 것보다 단단해야 건강 상태가 좋다.
- 대변이 무르거나 설사가 나면 건강 상태가 나빠진다. (찬 것, 기름진 것을 먹으면 심하다.)
- 대변이 굳어지면 건강상태가 나빠지며 변비가 생기면 속에서 열이 많이 난다. 이때 차라리 설사를 시키는 것이 편하다.
- 대변이 보통이거나 약간 무른 편인데 기분이 나쁘거나, 매운 것을 먹으면 설사가 나고 이때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된다.
- 대변은 평소에 된 편이고 변비가 생기면 배에 가스가 많이 찬다. 또는 대변이 과식으로 인하여 설사가 나는데 시원하지 않다.
- 대변이 평소 무르거나 설사가 잘 나는 편이나 설사를 해도 몸이 차가워지거나 건강의 급격한 악화는 없다.
- 대변이 평소 무른 것이 된 것보다 좋고 굵기가 굵고 크면서 많이 나오면 건강이 좋다.
- ⑦ 小便—평소 횃수(시간마다 1회 또는 1일 회), 시원한 편,
 - 시원하지 않은 편, 야간에 자주 보는 편
 - 회수 회/1일 량 색깔
 - 추우면 소변이 더욱 자주 보게 되고 색깔이 대체로 연한 편이다.
 - 몸에 열이 나면 소변을 자주보면서 색깔이 누렇거나 붉게 본다. 먹는 양보다 소변량이 줄어든다.
 - 몸에 열이 많으면 갈증이 나서 물을 먹는데 먹는 것보다 소변량이 더 많이 보게 된다.
 - 평소에 땀이 잘 나지 않으면 소변이 연하게
- 많이 나온다.
- 평소에 소변을 자주 보고 양이 늘어나면 건강하다.
- ⑧ 睡眠상태—잠을 잘 자는 편, 잠이 잘드는 편, 낮잠을 잘자는 편, 천면
 - 시간 깊이 꿈
 - 잠은 비교적 잘오는 편이고 추우면 잠이 잘 오지 않고 신경을 많이
 - 쓸일이 생기면 잠이 좀 안오는 편이며 몸에 열이 있을 때에도 비교적 잘 잔다.
 - 평소에 잠이 좀 적은 편이며 잠이 잘 오지 않고 신경을 많이 쓰며 잠을 이루기가 많이 힘들고 몸에 열이 있으면 거의 잠을 자지 못한다.
 - 비교적 잠이 많이 오는 편이나 열이 오르면 잠이 안오고 피로하다.
 - 비교적 잠이 많고 쉽게 잠에 든다. 낮에도 한가하면 잠이 온다.
- ⑨ 月經상태—규칙적인 편, 불규칙적인 편(빠른 편, 느린편), 월경통이 있는 편(월경전, 중, 후), 월경량 및 상태
- ⑩ 舌—舌質 紅, 淡紅, 紅絳 舌尖 赤, 舌苔 黃白 黑,
 - 설질이 담홍하고 태가 얇다.
 - 설질이 가늘고 홍적하고 움직임이 빠르다.
 - 설질이 크고 두터우며 태가 많이 끼인다.
- ⑪ 피부 ·부연하다. ·매끈매끈하다 ·두텁고 땀 구멍이 성글다.
- ⑫ 좋아하는 음식-육식 채식 해산물등등
- ⑬ 싫어하거나 부작용이 난 음식-
- ⑭ 病理的인 特徵—2개 항목
 - 體質判別함에 있어 既往歷을 참고하고자 함이다.

① 과거에 앓았던 病

- 高血壓, 糖尿病, 結核, 喘息, 肝疾患, 알레르기성 疾患, 癌, 其他疾患

② 평소 건강할 때 자주 느끼는 증상 및 병증

- 心悸, 眼疲勞 및 疼痛, 善太息(자주 한숨을 쉰다), 팔다리가 떨린다, 사지무력감, 건망증, 가슴이 답답하고 막힌 듯하다, 다리에 힘이 없어 오래 걷기가 힘들다, 感氣, 便秘, 泄瀉, 消化異常, 神經不安, 腰痛, 嘔逆感, 코피, 목에 異常 感覺

③ C/C(主訴症)

: 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現症勢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두가 中風(腦血管疾患)患者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대동소이하다고 보아 생략하기로 한다.

④ 體質 및 辨證結果

: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전문의가 판단한 體質 및 辨證의 결과를 말한다.

⑤ 處方 및 治療經過

: 體質 및 辨證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시술되어지는 약물처방 및 치료의 결과를 말한다.

5. 統計 分析 方法

體質과 各 문항사이 間의 聯關性 存在에 대한 檢證을 위해서는 非모수 統計分析 方法중의 하나인 交叉分析을 使用하였다³⁾.

實驗結果의 統計處理는 統計處理 Package인 SPSS/pc를 使用하였으며, P값이 最小 0.05以下의 값을 보이는 境遇 有意한 差異의 限界로 삼았다.

Ⅲ. 實驗成籍

體質과 各 問項사이 間의 聯關性 存在에 대한 檢證을 위해서는 非모수 統計分析 方法중의 하나인 交叉分析을 使用하였다.¹¹⁾

體形氣像 6개 문항, 心性 및 性質 材幹 4개 문항 중에서는 크게 有意性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容貌詞氣 9개 문항 중 얼굴모양(Table 6), 걸음걸이(Table 7), 피부(Table 8,9), 전반적인 얼굴에서 느껴지는 느낌(Table 10), 生理的인 生活習慣 13개 문항 중 汗(Table 11), 食慾(Table 12), 大便(Table 13,14), 小便(Table 15), 皮膚(Table

<Table 6> Crosstabulation : question of "얼굴모양 : 눈코입이 작고 섬세한 편" by sasang constitution

問項標記	少 陽	太 陰	少 陰	계
예	1		2	3 16.7
아니오	8	7		15 83.3
계	9 50.0	7 38.9	2 11.1	18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Cells with E.F. < 5
11.60000 2 0.00303 0.333 4 OF 6 (66.7%)

<Table 7> Crosstabulation : question of "걸음이 빠르고 몸을 흔든다." by sasang constitution

問項標記	少 陽	太 陰	少 陰	계
예	5			5 27.8
아니오	4	7	2	13 72.2
계	9 50.0	7 38.9	2 11.1	18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Cells with E.F. < 5
6.92308 2 0.03138 0.556 4 OF 6 (66.7%)

<Table 8> Crosstabulation : question of “皮膚가 회고 마른 편이다.” by sasang constitution

問項標記	少 陽	太 陰	少 陰	계
예	3		2	5 27.8
아니오	6	7		13 72.2
계	9 50.0	7 38.9	2 11.1	18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Cells with E.F.< 5
8.03077 2 0.01804 0.556 4 OF 6 (66.7%)

<Table 11> Crosstabulation : question of “대체로 땀이 적은 편이거나 땀이 다른 사람보다 적다.” by sasang constitution

問項標記	少 陽	太 陰	少 陰	계
예	4		2	6 23.1
아니오	8	11	1	20 76.9
계	12 46.2	11 42.3	3 11.5	26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Cells with E.F.< 5
7.22222 2 0.02702 0.692 4 OF 6 (66.7%)

<Table 9> Crosstabulation : question of “皮膚가 부드럽고 마른 편이다.” by sasang constitution

問項標記	少 陽	太 陰	少 陰	계
예			1	1 5.6
아니오	9	7	1	17 94.4
계	9 50.0	7 38.9	2 11.1	18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Cells with E.F.< 5
8.47059 2 0.01448 0.111 4 OF 6 (66.7%)

<Table 12> Crosstabulation : question of “기분에 따라 식욕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편차가 심하다” by sasang constitution

問項標記	少 陽	太 陰	少 陰	계
예		1	2	3 11.5
아니오	12	10	1	23 88.5
계	12 46.2	11 42.3	3 11.5	26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Cells with E.F.< 5
10.56214 2 0.00509 0.346 4 OF 6 (66.7%)

<Table 10> Crosstabulation : question of “얼굴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단정하다.” by sasang constitution

問項標記	少 陽	太 陰	少 陰	계
예	1	3	2	6 33.3
아니오	8	4		12 66.7
계	9 50.0	7 38.9	2 11.1	18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Cells with E.F.< 5
6.28571 2 0.04316 0.667 5 OF 6 (83.3%)

<Table 13> Crosstabulation : question of “평소에 대변이 무른 것보다 단단해야 건강상태가 좋다.” by sasang constitution

問項標記	少 陽	太 陰	少 陰	계
예	4		2	6 23.1
아니오	8	11	1	20 76.9
계	12 46.2	11 42.3	3 11.5	26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Cells with E.F.< 5
7.22222 2 0.02702 0.692 4 OF 6 (66.7%)

<Table 14> Crosstabulation : question of “大便이 두르거나泄瀉가 나면 건강 상태가 나빠진다.(찬 것, 기름진 것을 먹으면 심하다.)” by sasang constitution

問項標記	少 陽	太 陰	少 陰	계
예	2		2	4 14.8
아니오	10	11	1	22 81.5
계	12 46.2	11 42.3	3 11.5	26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Cells with E.F.<5
8.07576 2 0.01763 0.462 4 OF 6 (66.7%)

<Table 15> Crosstabulation : question of “몸에 열이 많으면 渴症이 나서 물을 먹는데 먹는 것보다 소변량이 더 많이 보게 된다.” by sasang constitution

問項標記	少 陽	太 陰	少 陰	계
예			1	1 3.8
아니오	12	11	2	25 96.2
계	12 46.2	11 42.3	3 11.5	26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Cells with E.F.<5
7.97333 2 0.01856 0.115 4 OF 6 (66.7%)

16), 病理的 特徵 2개 문항 중에서 평소 느끼는 自覺症勢 등의 12개 項目(Table 17)에서 統計的으로 有意한 차이가 있었다.

각 項目에 대한 體質別 차이에서는 얼굴모양에 있어서는 太陰人과 少陽人에 비하여 少陰人이 “눈코입이 작고 섬세한 편”이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다.(Table 6) 걸음걸이에 있어서는 太陰人과 少陰人이 少陽人에 비하여 “걸음이 빠르고 몸을 흔든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낮았다.(Table 7) 皮膚에 있어서는 少陽人에 비하여 少陰人이 “회고 마른

<Table 16> Crosstabulation : question of “皮膚가 매끈매끈하다.” by sasang constitution

問項標記	少 陽	太 陰	少 陰	계
예	3	3	3	9 34.6
아니오	9	8		17 65.4
계	12 46.2	11 42.3	3 11.5	26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Cells with E.F.<5
6.41889 2 0.04038 1.038 4 OF 6 (66.7%)

<Table 17> Crosstabulation : question of “평소에 느끼는 자각증세-健忘症” by sasang constitution

問項標記	少 陽	太 陰	少 陰	계
예			1	1 4.3
아니오	11	9	2	22 95.7
계	11 47.8	9 39.1	3 13.0	23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Cells with E.F.<5
6.96970 2 0.03066 0.130 4 OF 6 (66.7%)

편이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太陰人은 빈도가 낮았다.(Table 8) “피부가 부드럽고 마른 편이다.”라는 항목에서는 少陽人과 太陰人이 少陰人에 비하여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Table 9) 전반적인 얼굴에서 느껴지는 느낌에서는 “단정하다.”라는 항목에서 太陰人에 비하여 少陰人은 높은 빈도의 대답을 하였으며, 少陽人은 낮은 빈도의 대답을 하였다.(Table 10)

汗出에 있어서는 太陰人이 少陽人과 少陰人에 비하여 “대체로 땀이 적은 편이거나 땀이 다른 사람보다 적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낮았다.(Table 11) 食慾에 있어서는 少陽人과 太陰人에 비하여 少

〈Table 18〉 체형별 분류도

		제 1 선	제 2 선	제 3 선	제 4 선	제 5 선	늑골각도	목젖 ↔ 배 곱	목젖 ↔ 검상돋기
少陽人	男평균	93.6	93.2	86.4	86.8	89.2	110.0	41.0	25.2
	女평균	91.4	96.8	93.8	99.2	105.8	105.0	37.4	23.0
	평 계	92.5	95.0	90.1	93.0	97.5	107.5	39.2	24.1
太陰人	男평균	90.0	93.0	94.0	96.0	96.0	105.0	44.0	25.0
	女평균	91.1	97.7	93.3	101.2	105.7	103.3	38.2	22.3
	평 계	91.0	97.0	93.4	100.4	104.3	103.6	39.0	22.7
少陰人	男평균	—	—	—	—	—	—	—	—
	女평균	84.5	86.5	76.5	83.0	91.0	95.0	40.5	24.5
	평 계	84.5	86.5	76.5	83.0	91.0	95.0	80.5	24.5
계	男평균	92.7	93.2	88.3	89.1	90.9	108.8	41.8	25.2
	女평균	90.2	95.6	90.8	97.6	103.4	102.6	38.3	22.9
	총평균	91.1	94.8	89.9	94.5	99.5	104.9	39.5	23.8

陰인이 “기분에 따라 식욕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편차가 심하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다. (Table 12) 大便에 있어서는 “평소에 대변이 무른 것보다 단단해야 건강 상태가 좋다.”라는 항목과 “대변이 무르거나 설사가 나면 건강 상태가 나빠진다. (찬 것, 기름진 것을 먹으면 심하다.)”라는 항목에서 少陽人에 비하여, 少陰人은 그렇다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太陰人은 그 빈도가 낮았다. (Table 13, 14) 小便에 있어서는 少陰人에 비하여 少陽人과 太陰人이 “몸에 열이 많으면 갈증이 나서 물을 먹는데 먹는 것보다 소변량이 더 많이 보게 된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낮았다. (Table 15) 皮膚에 있어서는 少陽人과 太陰人에 비하여 少陰人은 “피부가 매끈매끈하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다. (Table 16)

평소에 느끼는 자각증세에 있어 少陰人에 비하여 少陽人과 太陰人에게서 “健忘症”이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낮았다. (Table 17)

IV. 考 察

이제까지의 醫學은 東西洋을 莫論하고 人間의 生理的 機能이 劃一的으로 누구나 똑같다는 생각에서 共通的 同質性을 전제로 하여 醫學을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劃一的 同質性만 갖고는 人體의 複雜한 生命現象의 認識에 限界가 있으므로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四端論〉에서 “人稟臟理에 有四不同하니 肺大而肝小者를 名曰 太陽人이오 肝大而肺小者를 名曰 太陰人이오 脾大而腎小者를 名曰 少陽人이오 腎大而脾小者를 名曰 少陰人이라”^{1,2)}하고 “太陽人은 哀性이 遠散而 怒情이 促急하니 哀性이 遠散則 氣注肺而肺益盛이오, 怒情이 促急則 氣激肝而肝益削하나니…… 少陽人은 怒性이 宏抱而 哀情이 促急 怒性이 宏抱則 氣注脾而 脾益盛 哀情이 促急則 氣激腎而腎益削하나니…… 太陰人은 喜性이 廣張而 樂情이 促急하니 喜性이 廣張則 氣注肝而 肝益盛 樂情이 促急則 氣激肺而 肺益削하나니……. 少陰人은 樂性이 深確而 喜情이 促急하니 樂性이

深確則 氣注腎而 腎益盛 喜情이 促急則 氣激脾而 脾益削하나니……^{1,2)}라 하였으며, “哀怒之氣는 上升이오, 喜樂之氣는 下降이니 上升之氣는 過多則 下焦가 傷이오, 下降之氣가 過多則 上焦가 傷이니라……”^{1,2)}라 하여 人體는 先天의으로 臟腑의 大小偏在를 지니고 있으며 臟腑의 大小로 인해서 큰 臟器는 그 機能이 더욱 實하기 쉽고 작은 臟器는 그 機能이 더욱 虛하기 쉽기 때문에 病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各 體質의 사람들은 哀怒喜樂之氣의 昇降에 의해 特殊한 性情과 疾病을 가지게 되고 그 治法 또한 相異하다는 것을 提示했다.^{4,9)}

결국 東武는 人間 個體의 差等的 特殊性을 背景으로 하여 네 體質의 體質類型을 主張하여 體質에 따라 體形氣像과 容貌詞氣, 心的인 性質과 材幹, 恒心, 心慾등 生理現象이나 病理現象이 다르므로 治療方法 및 平素 健康維持 方法도 사람마다 달라져야 한다고 보았으니,^{1,2)} 대체로 體形氣像과 容貌詞氣, 心的인 性質과 材幹, 恒心, 心慾등 生理現象과 病理現象의 各 四象體質人別 鑑別方法을 東醫壽世保元의 辨證論 등을 참고로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1,2)}

먼저 四象人의 外貌에서 體形氣像과 容貌詞氣를 살펴보면

體形氣像은 太陽人이 ‘腦頤之氣勢 盛壯而 腰圍之立勢 孤弱’하다고 하였고, 太陰人은 ‘腰圍之立勢 盛壯而 腦頤之氣勢 孤弱’하다고 하였고, 少陽人은 ‘胸襟之包勢 盛壯而 膀胱之坐勢 孤弱’하다고 하였으며, 少陰人은 ‘膀胱之坐勢 盛壯而 胸襟之包勢 孤弱’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體形氣像은 근래 尺度法에 의하여 簡便하고 實證의으로 體質을 診斷하는데 應用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限界를 지닌 것이지만 腹診時 望診을 통해서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어깨부위의 제1선은 上焦 基準線이 되고, 가슴부위의 제2선은 中上焦 基準線이 되며, 胃部位의 제3선은

陰陽의 分枝線이 되고, 배꼽부위의 제4선은 中下焦 基準線, 腸骨部位의 제5선은 下焦 基準線이 된다.^{1,2)}

容貌詞氣에 있어, 太陽人의 容貌詞氣는 ‘腦頤之氣勢強旺 性質疏通又有果斷’하다고 하였고, 太陰人의 容貌詞氣는 ‘體形長大 起居有儀而修正正大’하다고 하였고, 少陽人의 容貌詞氣는 ‘上盛下虛 胸實足輕而 票銳好勇’하다고 하였으며, 少陰人의 容貌詞氣는 ‘體形矮短(短小靜雅) 體任自然而 簡易小巧’하다고 하였다. 容貌詞氣는 全體的인 外貌上의 特性을 살피는 것이나 太陰人과 少陰人 등은 그 大小長短이 정반대로도 나타나는 등의 경우가 많으니 이 또한 참고로서 삼는 것이 좋다.^{1,2)}

內心(心性)에 있어서는 外貌를 통하여 內面的인 心性(마음)을 파악하기 위하여 四象人의 性質材幹, 恒心, 性格, 心慾을 관찰 분류한다.^{1,2)}

性質材幹에 있어서, 太陽人의 性質材幹은 ‘疏通(果斷), 交遇’하다고 하였고, 太陰人의 性質材幹은 ‘成就, 居處’하다고 하였고, 少陽人의 性質材幹은 ‘剛武, 事務’하다고 하였으며, 少陰人의 性質材幹은 ‘端重, 黨與’하다고 하였다.^{1,2)}

恒心에 있어서, 太陽人의 恒心은 ‘急迫之心’이라고 하였고, 太陰人의 恒心은 ‘怯心’이라고 하였고, 少陽人의 恒心은 ‘懼心’이라고 하였으며, 少陰人의 恒心은 ‘不安定之心’이라고 하였다.^{1,2)}

性格에 있어서, 太陽人의 性氣는 ‘恒欲進而 不欲退, 恒欲爲雄而 不欲爲雌’하다고 하였고, 太陰人의 性氣는 ‘恒欲靜而 不欲動 恒欲內守而 不欲外勝’하다고 하였고, 少陽人의 性氣는 ‘恒欲舉而 不欲措, 恒欲外勝而 不欲內守’하다고 하였으며, 少陰人의 性氣는 ‘恒欲處而 不欲出 恒欲爲雌而 不欲爲雄’하다고 하였다.^{1,2)}

心慾에 있어서, 太陽人의 心慾은 ‘放縱之心’이라고 하였고, 太陰人의 心慾은 ‘物慾之心’이라고 하

였고, 少陽人의 心慾은 '偏私之心'이라고 하였으며, 少陰人의 心慾은 '偷逸之心'이라고 하였다.^{1,2)}

病證에 있어서는 평소 건강할 때의 生理의 조건인 完實無病을 제시하고 四象人에 나타나는 각기 다른 病證(大病과 重病)을 설명하여 體質分類에 응용하였다.^{1,2)}

太陽人 病證은 完實無病은 '小便旺多'이라고 하였고, 大病은 '口中多出沫'이라고 하였고, 重病은 '臑膈(胃脘之上焦 散轉如風)'이라고 하였고, 性情偏急은 '忿怒激外'이라고 하였다.^{1,2)}

太陰人 病證은 完實無病은 '汗液通暢'이라고 하였고, 大病은 '陽剛緊密'이라고 하였고, 重病은 '痢病(小腸之下焦 窒塞如霧)'이라고 하였으며, 性情偏急은 '侈樂無厭'이라고 하였다.^{1,2)}

少陽人 病證은 完實無病은 '大便善通'이라고 하였고, 大病은 '大便不通'이라고 하였고, 重病은 '大便不通(胸膈必如烈火)'이라고 하였으며, 性情偏急은 '悲哀動中'이라고 하였다.^{1,2)}

少陰人 病證은 完實無病은 '飲食善化'이라고 하였고, 大病은 '虛汗'이라고 하였고, 重病은 '泄瀉不止(臍下必如冰冷)'이라고 하였으며, 性情偏急은 '喜好不定'이라고 하였다.^{1,2)}

이러한 四象體質人의 特性을 통한 判別에 있어서도 몇가지 難點이 있으니, 少陽人 중에서 마치 少陰人과 같이 短小靜雅한 자가 있으며, 少陰人 중에서도 長大한 자가 있고, 太陰人 중에서도 矮短한 자가 있어 서로 비슷한 점이 있으니 그 病證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體形氣像, 性質材幹, 容貌詞氣, 病證 등은 각 體質이 가진 全體的인 傾向性을 표현한 것이지 그 자체가 絕對的인 特異性을 가진 要素는 아니다. 그러므로 體質의 診斷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治療에 대한 反應이다. 다시 말하면 體型은 다양한 운동에 의해 변화될 수 있고, 性格은 後天的인 教育, 가정환경,

경험을 통한 性格의 變化 등을 통해 變化될 수 있고, 才能도 教育과 노력, 부단한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으나, 治療에 대한 反應에 가서는 결국 그 體質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體質診斷의 結論은 그 사람을 體質과 病證을 감별하여 適合한 治療를 하였을 때 어떻게 反應하느냐까지를 보아야 確診할 수 있으며, 藥에 의한 作用은 다른 方法들을 통하여 한 診斷 缺課에 대한 檢證의 수단이 된다. 물론 다른 體質이라도 그 藥과 附合되는 病證을 가지고 있다면 일시적인 호전을 보일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副作用을 招來한다.^{1,2)}

이렇게 體形氣像, 性質材幹, 容貌詞氣, 病證藥理를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患者의 體質을 診斷하는 것이 體質診斷의 가장 古典的인 方法인 동시에 現在까지도 가장 널리 쓰이는 方法이다. 그리고 이러한 方法은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病證에만 관심을 두던 既存의 辨證 方法들과는 달리, 사람을 알고 病을 아는, 그리고 사람에 따른 疾病의 特性을 아는 全人的인 接近의 方法을 이룬 것이다. 결국 病에 의해 유발된 症狀에 대한 관심의 틀에서 한차원 더 나아가 "人間을 알고, 病을 알자"는 것이 李濟馬가 새로이 提起한 思考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¹⁾

본 研究는 簡易 臨床說問紙의 작성에 目的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먼저, 各 體質人의 特性에 따라 體形氣像과 容貌詞氣, 心的인 性質과 材幹, 恒心, 心慾등 生理現象과 病理現象이 현대인에게 있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說問을 통하여 확인해 보고, 臨床的으로 各 體質에 따라서 어떠한 항목들이 體質分類에 있어 統計的으로 有意性을 가지고 있는지의 與否이다. 즉 假令 太陰人을 判정함에 있어서 體格의 長大함과 言行 및 食事관계를 위주로 본다던지, 少陽

人을 판별함에 있어서는 汗少而疲한다던가 大便의 상태를 위주로 體質판별에 중점을 둔다던지 하는 統計的으로 有意한 項目을 찾아보는 것이며, 또한 統計的으로 有意한 差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臨床的으로 어떠한 系統으로 各 體質間의 體形氣像과 容貌詞氣, 心的인 性質과 材幹, 恒心, 心慾등 生理現象과 病理現象症狀사이에 相關性이 있는지의 與否이다.

이는 곧 四象醫學의 理論이 實際 臨床에서 그대로 適用되는지를 檢討하는 것이며, 또한 體質에 따라 다른 體質과 區別되는 특이한 體形氣像과 容貌詞氣, 心的인 性質과 材幹, 恒心, 心慾등 生理現象과 病理現象상의 判別점이 있는지를 밝혀서 體質分類에 대한 간편한 資料로 삼아 臨床的 活用に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附屬韓方病院에 中風으로 入院 治療中인 患者 27명을 對象으로 四象體質分類 檢査(QSCCI)와 設問調查 實施하여 體質診斷分類를 하고 四象學會 設問紙(5개항목 33문항)를 통해 體形氣像, 容貌詞氣, 心的인 性質과 材幹, 恒心, 心慾등 生理現象과 病理現象상의 關係를 比較分析하여 臨床的으로 體質診斷分類에 따른 體形氣像과 容貌詞氣, 心的인 性質과 材幹, 恒心, 心慾등 生理現象과 病理現象에 關한 相關性에 對하여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實驗成績의 結果는 體質과 各 문항사이 間의 聯關性 存在에 대한 檢證을 위해서는 非모수 統計分析 方法中의 하나인 交叉分析을 使用하였다.¹¹⁾

본 研究에서 體形氣像 6개 문항, 心性 및 性質 材幹 4개 문항 중에서는 크게 有意성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容貌詞氣 9개 문항 중 얼굴모양(Table 6), 걸음걸이(Table 7), 피부(Table 8,9), 전반

적인 얼굴에서 느껴지는 느낌(Table 10), 生理的인 生活習慣 13개 문항 중 汗(Table 11), 食慾(Table 12), 大便(Table 13,14), 小便(Table 15), 皮膚(Table 16), 病理的 特徵 2개 문항 중에서 평소 느끼는 自覺症勢(Table 17) 등의 총 12개 項目에서 統計的으로 有意한 차이가 있었다.

各 項目에 대한 體質別 차이에서는 얼굴모양에 있어서는 太陰人과 少陽人에 비하여 少陰人이 “눈 코입이 작고 섬세한 편”이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다.(Table 6) 걸음걸이에 있어서는 太陰人과 少陰人이 少陽人에 비하여 “걸음이 빠르고 몸을 흔든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낮았다.(Table 7) 皮膚에 있어서는 少陽人에 비하여 少陰人이 “회고 마른 편이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太陰人은 빈도가 낮았다.(Table 8) “피부가 부드럽고 마른 편이다.”라는 항목에서는 少陽人과 太陰人이 少陰人에 비하여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Table 9) 전반적인 얼굴에서 느껴지는 느낌에서는 “단정하다.”라는 항목에서 太陰人에 비하여 少陰人은 높은 빈도의 對답을 하였으며, 少陽人은 낮은 빈도의 對답을 하였다.(Table 10)

汗出에 있어서는 太陰人이 少陽人과 少陰人에 비하여 “대체로 땀이 적은 편이거나 땀이 다른 사람보다 적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낮았다.(Table 11) 食慾에 있어서는 少陽人과 太陰人에 비하여 少陰人이 “기분에 따라 식욕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편차가 심하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다.(Table 12) 大便에 있어서는 “평소에 대변이 무른 것보다 단단해야 건강 상태가 좋다.”라는 항목과 “대변이 무르거나 설사가 나면 건강 상태가 나빠진다.(찬 것, 기름진 것을 먹으면 심하다.)”라는 항목에서 少陽人에 비하여, 少陰人은 그렇다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太陰人은 그 빈도가 낮았다.(Table 13,14) 小便에 있어서는 少陰人에 비

하여 少陽人과 太陰人이 “몸에 열이 많으면 갈증이 나서 물을 먹는데 먹는 것보다 소변량이 더 많이 보게 된다.” 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낮았다. (Table 15) 皮膚에 있어서는 少陽人과 太陰人에 비하여 少陰人은 “피부가 매끈매끈하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다. (Table 16)

평소에 느끼는 자각증세에 있어 少陰人에 비하여 少陽人과 太陰人에게서 “健忘症”이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낮았다. (Table 17)

體形氣像에 있어서는 統計的으로 有意性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全般的으로 살펴볼 때 제1선-제5선과 흉골각도에서는 太陰人과 少陽人이 크게 나타나고 少陰人은 작게 나타나며, 목젓에서 배꼽과 검상돌기까지의 길이는 반대로 少陰人이 크고 太陰人과 少陽人이 작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제3선은 少陽人과 太陰人에 비하여 少陰人이 상당히 작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四象體質별로는 太陰人으로 分類된 者는 11名 (40.7%), 少陰人으로 分類된 者는 3名 (11.1%), 少陽人으로 分類된 者는 13名 (48.1%)으로 少陽人과 太陰人이 많고, 少陰人은 그 수가 적었다.

性別로는 總 27名중 男子는 8名 (29.63%)이고 女子가 19名 (70.37%)으로 女子가 더 많았다. 男子 中에서는 太陰人이 2名 (7.41% (25.0%)), 少陽人이 6名 (22.2% (75.0%))으로 少陽人이 많고 太陰人과 少陰人은 적었으며, 女子에 있어서는 太陰人이 9名 (33.3% (47.4%))이었고, 少陽人이 7名 (25.9% (36.8%)), 少陰人이 3名 (11.1% (15.8%))으로 나타나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 順이었다.

年齡別로는 被驗者의 年齡의 平均은 59.3歲이고 最小年齡은 28歲이고 最大年齡은 76歲이었다.

體重別로는 被驗者의 體重의 平均은 59.1kg이고 最小體重은 43.0kg이고 最大體重은 75kg이었다. 이중 太陰人의 平均 體重이 62.6kg으로 平均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少陽人은 平均 57.1kg으로 비교적 작게 나타났으며, 少陰人은 51.3kg으로 매우 작게 나타났다.

身長別로는 全體 被驗者의 身長의 平均은 159.1cm이고 最小身長은 147cm이고 最大身長은 170cm이었다. 太陰人과 少陽人은 平均치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少陰人은 매우 작게 나타났다.

위의 結果로 볼 때 太陰人은 體形氣像에 있어서는 키가 크고 胸廓이 넓으나 세로길이는 다소 작은 가로직사각형의 體型이고, 過多體重의 肥人으로 體格이 비교적 長大하게 나타났다. 生理的인 生活習慣에서는 ‘땀이 적은 편이 아니며’, ‘大便이 무르거나 泄瀉가 나도 건강 상태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하였다.

少陰人은 體形氣像에 있어서는 胸廓의 가로 넓이와 늑골각이 모두 작게 나타나며 세로길이는 크게 나타나는 세로직사각형의 體刑이고, 瘦人으로서 體重이 매우 적게 나가며 체격도 매우 矮短하게 나타났다. 容貌詞氣에 있어서는 ‘눈코입이 작고 섬세한 편’이며, 皮膚는 ‘회고 말랐으며’, ‘부드러운 편’이었고, ‘매끈매끈’하였다. 전반적인 얼굴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단정하다.’고 하였다. 生理的인 生活習慣에서는 ‘기분에 따라 食慾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편차가 심하며’, ‘大便이 무르거나 泄瀉가 나도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경향이 있고, ‘몸에 열이 많으면 갈증이 나서 물을 먹는데 먹는 것보다 소변량이 더 많기도 하며’, 평소에도 건망증이 있다.

少陽人은 體形氣像에 있어서는 胸廓의 가로 넓이와 늑골각이 넓고 세로길어도 太陰인과 달리 보통으로 나타나는 직사각형의 體刑이고, 體格도 다소 크게 나타났다. 皮膚가 매끄럽지 않고, 걸음걸이에 있어서 ‘걸음이 빠르고 몸을 흔드는’ 편이다.

V. 結 論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附屬韓方病院에 中風으로 入院 治療中인 患者 27명을 대상으로 體質診斷分類와 體形氣像, 容貌詞氣, 心的인 性質과 材幹, 恒心, 心慾등 生理現象과 病理現象상의 關係를 問診紙(5개항목 33문항)를 中心으로 比較分析하여 臨床的으로 體質診斷分類에 따른 體形氣像과 容貌詞氣, 心的인 性質과 材幹, 恒心, 心慾등 生理現象과 病理現象에 關한 相關性에 對하여 알아 보고자 하였다.

1. 얼굴모양에 있어서는 太陰人과 少陽人에 비하여 少陰人이 “눈코입이 작고 섬세한 편”이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다.
2. 걸음걸이에 있어서는 太陰人과 少陰人이 少陽人에 비하여 “걸음이 빠르고 몸을 흔든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낮았다.
3. 皮膚에 있어서는 少陽人에 비하여 少陰人이 “회고 마른 편이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太陰人은 빈도가 낮았다.
4. 皮膚에 있어서는 “피부가 부드럽고 마른 편이다.”라는 항목에서는 少陽人과 太陰人이 少陰人에 비하여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5. 전반적인 얼굴에서 느껴지는 느낌에서는 “단정하다.”라는 항목에서 太陰人에 비하여 少陰人은 높은 빈도의 대답을 하였으며, 少陽人은 낮은 빈도의 대답을 하였다.
6. 汗出에 있어서는 太陰人이 少陽人과 少陰人에 비하여 “대체로 땀이 적은 편이거나 땀이 다른 사람보다 적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낮았다.
7. 食慾에 있어서는 少陽人과 太陰人에 비하여 少陰人이 “기분에 따라 식욕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편차가 심하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다.

8. 大便에 있어서는 “평소에 대변이 무른 것보다 단단해야 건강 상태가 좋다.”라는 항목과 “대변이 무르거나 설사가 나면 건강 상태가 나빠진다. (찬 것, 기름진 것을 먹으면 심하다.)”라는 항목에서 少陽人에 비하여 少陰人은 그렇다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太陰人은 그 빈도가 낮았다.
9. 小便에 있어서는 少陰人에 비하여 少陽人과 太陰人이 “몸에 열이 많으면 갈증이 나서 물을 먹는데 먹는 것보다 소변량이 더 많이 보게 된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낮았다.
10. 皮膚에 있어서는 少陽人과 太陰人에 비하여 少陰人은 “피부가 매끈매끈하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다.
11. 평소에 느끼는 자각증세에 있어 少陰人에 비하여 少陽人과 太陰人에게서 “健忘症”이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낮았다.
12. 形體氣像에 있어서는 統計的으로 有意性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全般的으로 흉곽은 太陰人과 少陽人이 크게 나타나고 少陰人은 작게 나타나며, 목젓에서 배꼽과 검상돌기까지의 길이는 반대로 少陰人이 크고 太陰人과 少陽人이 작게 나타났다. 특히 제3선은 少陽人과 太陰人에 비하여 少陰人이 상당히 작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體重은 太陰人이 많이 나가며, 身長은 少陰人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以上の 結果로 볼 때 體質에 따른 體形氣像, 容貌詞氣, 心的인 性質과 材幹, 恒心, 心慾등 生理現象과 病理現象상의 關係에 대한 臨床的인 研究가 더욱 必要할 것으로 思慮된다.

參 考 文 獻

1. 宋一炳 외,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pp.34-36, 44-48, 59-87, 93-99, 119-140, 1997
2. 李濟馬, 四象醫學原論, 서울, 행림출판, pp.79-145, 377-392, 1992
3. 金達來, 四象醫學 辨證論에 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Vol. 1 No.1 pp 41, 1989
4. 金善豪, 四象體質分類檢査(QSCC)의 妥當化 研究, 四象醫學會誌, Vol.5. No.1. pp67-86, 1993
5. 宋一炳, 四象人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成立過程에 대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Vol. 6. No.1, pp71-79, 1994
6. 李義柱 외,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查紙(I)의 妥當化 研究, 四象醫學會誌, Vol. 7. No.2. pp89-100, 1995
7. 金善豪 외,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SC II)의 標準化 研究, 四象醫學會誌, Vol. 8. No.1. pp187-246, 1996
8. 李廷燦 외,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SC II)의 妥當化 研究, 四象醫學會誌, Vol. 8. No.1. pp247-294, 1996
9. 金鍾元, 體質診斷分類에 따른 疾病 및 症狀類型에 관한 임상적 연구 (문진표를 중심으로), 四象醫學會誌, Vol. 8. No.1. pp337-348, 1996
10. 盧聖鎬 외, 四象體質分類檢査의 妥當化 方案 모색을 위한 設問調查 結果分析, 四象醫學會誌 Vol. 8. No.2. pp239-256, 1991
11. 蔡瑞一외, spss/pc+를 이용한 統計分析, 서울, 학현사, pp 184-190, 1991